

현대국어 ‘돌려주다’와 중세국어 ‘도로 주다’에 대하여

장 고 은*

I. 서론

현대국어에서 ‘돌려주다’는 ‘빌리거나 뺏거나 받거나 한 것을 주인에게 도로 주거나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현대 한국어 화자들에게 ‘V어V’ 구성 즉 ‘돌리’와 ‘주’의 두 동사가 투명하게 연결된 합성동사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은 ‘돌려놓다, 돌려받다, 돌려보내다, 돌려쓰다’와 같이 ‘돌-’의 사동사 ‘돌리-’를 포함한 ‘V어V’ 구성이나 ‘빌려주다, 돌려주다, 물려주다’ 등과 같이 ‘주-’를 포함한 ‘V어V’ 구성의 존재를 통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돌려주다’의 의미를 보이는 ‘V어V’ 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어사 자료 말뭉치>에서 ‘돌려주다’의 의미는 ‘도로 주다’ 구성을 통해 드러나며, 문헌상 ‘돌려주다’는 20세기의 『수정증보조선어사전』(1942)의 기술에서야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도로 주다’와 현대국어의 ‘돌려주다’를 중심으로 사동사의 변화와 ‘V어V’ 동사 연결 구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국어의 ‘돌려주다’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화하는 어느 시점에서 ‘돌-’의 사동사 ‘돌리-’와 동사 ‘주-’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V어V’ 구성을 이루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형태적 특징은 ‘돌-’의 사동사의 변화와 관련되며, 그 의미적 특징은 ‘V어V’ 동사 연결 구성이 긴밀해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는 중세국어의 ‘돌-’의 사동사 ‘도르-’가 ‘돌리-’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도르-’와 부사 ‘도로’의 관계와 ‘돌려주다’의 내적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도르-’와 ‘돌리-’의 관계

현대국어의 동사 ‘돌-’의 사동사는 ‘돌리-’이다. 이는 중세국어의 ‘돌이-’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돌-’은 ‘살-’, ‘일-’ 등과 함께 ‘-이-’계 혹은 ‘-우-’계의 사동사와 ‘-으-/으-’계의 사동사를 모두 가지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동사들은 의미 차이를 보였는데, ‘돌이-’와 ‘도르-’도 각각 ‘회전시키다’, ‘전환시키다’의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대어를 중심으로 ‘돌-’과 그 파생동사의 어휘 의미와 논항구조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돌-’과 ‘도르-’, 그리고 ‘돌이-’가 겪는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사 ‘돌-’이 지니는 의미는 크게 ‘회전(回轉)’과 ‘전환(轉換)’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1) 회전(回轉)의 의미

- ①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
- ② 돌레를 빙 돌다(동작/상태 cf. 두르다)
- ③ 작동하다
- ④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차례로 거쳐 가며 전전하다 / 유통되다
- ⑤ 번갈다 / 나누다
- ⑥ 돌이다니다
- ⑦ 걸으로 나타나다, 생기다 / 퍼지다
- ⑧ 필요한 돈 등을 다른 곳에서 구하다 / 빼돌리다 / 속다(cf. 휘돌리다)
- ⑨ 한패에 넣어주지 아니하다(따돌리다 cf. 도리다)

(2) 전환(轉換)의 의미

- ① 방향을 바꾸다 / 뒤돌다
- ② 생각을 바꾸다, 고치다
- ③ 피하다, 면하다

(1), (2)는 기존 사전의 ‘돌-’과 ‘돌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끼리 묶은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회전’과 ‘전환’의 구분을 어느 정도 명료화하기 위함이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위의 구분은 대체로 유효하다. ‘회전’과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원의 의미의 정도이다. ‘전환’은 원의 의미가 매우 약한데, 각도로 말하자면 180도까지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보이는 현대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모두 보이며, 그 자동사로 ‘돌리-’를 가진다. 각각의 논항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회전의 ‘돌-’

- ㄱ. (대상)이 돌다
- ㄴ. (기준)을 돌다
- ㄷ. (대상)이 (기준)을 돌다
- ㄹ. (방향)으로 돌다

(4) 회전의 ‘돌리-’

- ㄱ. (대상)을 돌리다
- ㄴ. (대상)을 (기준)을 돌리다

(5) 전환의 ‘돌-’

(마음, 신체, 탈 것)이 돌다

(6) 전환의 ‘돌리-’

- ㄱ. (마음, 신체, 탈 것, 상황)을 돌리다
- ㄴ. (마음, 신체, 탈 것, 상황)을 (방향)으로/에 돌리다

(3), (4)는 ‘회전’의 의미를 보이는 ‘돌-’과 ‘돌리-’의 논항구조이며, (5), (6)은 ‘전환’의 의미를 보이는 논항구조이다. ‘전환’의 대상은 주로 마음이나 ‘머리’ 등의 신체의 일부, 혹은 ‘말, 수레’ 등 탈 것이지만, 문맥에 따라 이

를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회전’과 ‘전환’의 의미의 구분은 현대국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중세국어에서는 유효하다. 먼저 중세국어에서 ‘돌-’이 ‘회전’과 ‘전환’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ㄱ. 버리 돌며 서리 오매 (두시언해 3: 8a)
 ㄴ. 須達이 禮를 몰라 혼 번도 아니 도라닐 (월인천강지곡 55)
 ㄷ. 올흔 녀그로 :도르·샤 세 번 값:도·르시·고 (월각경언해 하2-1: 3b)
 ㄹ. 날굽 거르물 두루 거르시며 누느로 四方을 도라 보시고 (금감경삼가해 1: 1b)
 ㅁ. 제 經 연즌 壇을 돌며 올오 닐오티 (월인석보 2: 74a)
- (8) ㄱ. 머리를 도라 브라고 시러곰 시름이 업스리아(廻首得無憂) (두시언해 5: 10b)
 ㄴ. 鳩留國 婆羅門이 아히 어디 지 도라 니거늘 (월인석보 20: 86a)
 ㄷ. [背馳는 뒤도라 돌일찌러 도라 가미 어려울씨(復之之難)] (법화경언해 3: 180a)

(7ㄱ, ㄴ, ㄷ)은 (1) ① ‘위를 그리며 움직인다’의 의미, (7ㄹ, ㅁ)은 (1) ② ‘돌레를 빙 돌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며, (8)의 예들은 (2) ①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돌-’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형태의 사동사를 가지고 있다. ‘회전’의 ‘돌아-’와 ‘전환’의 ‘도르-’가 그것이다. 이들은 활용상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성조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I	II	III
돌다	돌오 RH 도르샤 RLH ¹⁾	도르니 LHH	도라 LH
도르다	도르고 LLH 도르샤 LLH	도르니 LLH	돌아 LH
돌이다	돌이고 LHH 돌이샤 LHH	돌이니 LHH	돌여 LH

1) 본래 RHH로 나타나야 하나, 거성이 세 번 연속적으로 오는 것을 피하는 ‘거성불

‘돌-’은 유동적 상성을 지니는 동사어간이기 때문에 자음어미와 ‘-으시-’ 앞에서는 상성으로 실현되고, 모음어미와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다. ‘도르-’는 ‘LH형’의 성조를 가진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어간으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도르 LH’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돌○ L’로 실현된다. 따라서 ‘도르-’에 ‘-으시-’가 결합한 ‘도르샤’나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은 ‘돌-’의 활용형과 일견 동일하다. 그러나 ‘돌-’에 ‘-으시-’가 결합한 ‘도르샤’의 성조는 ‘RLH형’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도르-’에 ‘-으시-’가 결합한 ‘도르샤’는 ‘LLH형’의 성조를 보인다. 또한 매개모음을 동반한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돌-’의 경우는 어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음절이 거성으로 실현되는 데에 비해 ‘도르-’의 경우는 어간의 ‘LH형’이 유지된다. 실제의 예를 살펴보자.

- (10) ㄱ. 즈개 다스리시는 짜홀 다 :도르·샤 (월인석보 1: 25b)
 ㄴ. 天下를 다 :도르·시느·니 (월인석보 1: 26a)
 ㄷ. 울히 :도·르시·며 (월인석보 2: 58a)
 ㄹ. 울흔 녀그로 :도르·샤 세 번 값:도·르시·고 (원각경언해 하 2-1: 3b)
- (11) ㄱ. 知音 ㅎ리는 爲 ㅎ야 머리롤 도르·라(知音爲回首) (두시언해 8: 5a)
 ㄴ. 빅롤 도르·디 아니 ㅎ눗다(未廻船) (두시언해 23: 54a)
 ㄷ. 戴 遶 스랑 ㅎ는 빅롤 오히려 도르·고저 ㅎ노라(猶回憶戴船) (두시언해 24: 46b)
 ㄹ. 부테 어엿비 너기샤 분별 ㅎ샤 時急히 브려 조차 도르·시·니(佛慈憂慮 ㅎ샤 急使追復 ㅎ시니) (법화경언해 2: 226a)
 ㅁ. 부텃 ㄹ우 ㅅ흔히 저그니 어텃던 차 도르·리·오 (월인석보 25: 31b)

(10)은 ‘돌-’에 ‘-으시-’가 결합한 예로 모두 첫 번째 음절의 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10ㄱ, ㄴ)은 (1) ④ ‘전전하다’의 의미, (10ㄷ, ㄹ)은 (1) ① ‘월을 그리며 움직이다’의 ‘회전’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1)은 ‘도르-’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모두 ‘도르 LH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2)의 ‘전환’의 의미에 해당한다.²⁾

연삼’ 규칙에 의해 뒤에서 두번째 음절의 거성이 평성으로 바뀐 것을 표시하였다.

2) 다만, (11ㄱ)의 경우는 ‘부처님의 조의가 매우 작으니 어찌 차 돌아가리오(나누어

‘전환’의 사동사 ‘도르-’의 예를 좀 더 살펴보면 ‘신체, 탈 것, 상황’ 등의 대상을 전환시키는 예를 중세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2) ㄱ. 머리를 돌아서(回首) (두시언해 17: 39b)
 ㄴ. 채를 돌아 도로 돌여 天子를 와 보스오니(廻鞭却走見天子) (두시언해 17: 31a)
 ㄷ. 北너긔셔 白帝城엿 빅출 돌아(北回白帝棹) (두시언해 22: 54a)
 ㄹ. 종을 돌아 보내야 아들 을 소겨 닐아 僧齋를 헛다라 헛니 (월인석보 23: 65b)
 ㄹ. 後 十年에 남지니 몬 도라 웁거늘 아비 一定 헛야 다르니 얼유려 커늘 머리 무지고 밥 아니 먹거늘 아비 드르니라 德武 | 다른 겨집 어러 赦에 노혀 오다가 듣고 後 겨지^ㅅ 돌아 보내오 夫妻 처섬 ㄹ티 사니라 (삼강행실도 런던본 ㄹ 14)

(12ㄱ)은 신체의 일부를, (12ㄴ, ㄷ)은 탈 것을 전환시키는 예이며, (12ㄹ, ㄹ)은 대상의 방향을 바꾸어 보낸다는 의미를 보인다. 특히 (12ㄹ)에서는 ‘남지니 몬 도라 웁거늘’과 같은 ‘돌-’의 자동사적 쓰임과 ‘(德武 |) 겨지블 돌아 보내오’와 같은 ‘도르-’의 타동사적 쓰임을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회전’의 의미의 사동사 ‘돌이-’는 중세국어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5세기에 나타난 예는 (13)의 예가 유일하며, (14)은 16세기에 나타난 예이다.

- (13) 말스미 굳고 혀를 돌이디 몬거든 (구급간이방언해 7: 2a)

- (14) ㄱ. 혹 세 번식 돌이며 혹 다섯 번식 돌여(或三行 或五行) (번역소학 10: 32a)
 ㄴ. 우리 각각 저그나 자고 돌여 니러 브즈러니 물 머기저(咱們各自睡些箇輪着起來勤喂馬) (번역노걸대 25a)
 ㄷ. 열 사라미 헛 숨곰 돌여 치라(十箇人一宿家輪着喂) (번역박통사 21b)
 ㄹ. 괴약 헛 사름 똥에 들마다 헛 사름곰 돌여 덕월을 사모디 (여씨향약언해 회산문고본 2a)

가지다/도르리오(두르다)’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전환’의 사동의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3)은 ‘움직이다, 작동하다’의 의미이므로 ‘회전’의 의미의 ‘돌-’의 사동사의 쓰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4ㄱ)의 ‘돌아-’는 ‘잔칫상’이라는 대상을 돌게 하는 것이고, (14ㄴ, ㄷ, ㄹ)의 예들은 (1) ⑤의 ‘변갈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모두 넓게 보면 ‘회전’의 의미로 쓰였다.

이들 파생동사들은 통시적으로 모두 ‘돌이-’를 거쳐 ‘돌라-’로 대체되어 간다. 먼저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르-’는 16세기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16세기에 나타나는 (15)의 ‘도르-’는 ‘어떤 대상을 빙 두르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15세기에는 (16)과 같이 ‘돌-’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었다.

- (15) ㄱ. 청서 피로 ㄴ는 시울 도르고 (번역박통사 28a)
 ㄴ. 父母 | 잇거시든 곳갈와 옷과를 흰 거스로 편즈 ·도르·디 말며 어버시 업슨 즈시기 지피 옷듬흐엿느니는 곳갈와 옷과를 빛난 거스로 편즈 도르·디 아니홀 다니라 (번역소학 4: 23b)
- (16) ㄱ. 天女 니분 오새 도흐 華香으로 莊嚴하야 두루 도라 (법화경언해 6: 48b)
 ㄴ. 손발와 가슴과에 다 吉祥엿 깃비 ·도르신 德相이 거샤 文이 비단 紋 근흐시고 (법화경언해 2: 19a)
 ㄷ. 상네 굴근 기블 니브시고 차마에 변즈를 도르디 아니흐더시니 (내훈 2: 41a)

이는 의미에 따라 ‘돌-’이 어형의 분화를 이룬 것으로 보이며, 현대어의 ‘도르-’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16세기 이후 ‘돌아X’ 형 중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모두 『삼강행실도』 동경대본이나 『두시언해』 중간본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 (17) ㄱ. 바닷쌍에 보내야 널오디 수양이 샷기 나해야 돌아 보내오리라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忠 6a)
 ㄴ. 노푼 소니 뷔 막를 돌아 보내니 (두시언해 중간본 15: 29a)

(17)의 예들은 모두 ‘돌아 보내-’의 구성을 보인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도르-’인지 ‘보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표기는 고

어적인 것에 속한다. 같은 시기에 같은 표현으로 더욱 많이 쓰인 것은 ‘도라 보내-’이다.

- (18) ㄱ. 안해 피신 사툼과 의장잇 **거슬** 다 도라 보내고 (소학언해 6: 54b)
 ㄴ. 예나라히 니르러 혼이를 권하야 ㄱ마니 도라 보내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忠 1b)

대신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로 ‘돌오-’가 나타나는데, 이는 문헌상에서 17세기의 세 예가 발견된다.

- (19) ㄱ. 芮公이 **머리**를 돌와 브라(초간본: 돌아 브라) ㄴ비출 ㄱ비 호느니 (두시언해 중간본 16: 56b)
 ㄴ. 갈 바를 아득하야 **머리**를 돌와 보니 (두시언해 중간본 12: 21b)
 ㄷ. 그 말쑤 일을 그 남금의 돌와 보내느니 (여훈언해 下 29a)

이들은 15세기의 ‘도르-’가 특수어간교체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모음어미와 결합시 ‘돌오-’의 어간형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는 위의 세 예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돌이-’로 합류된 것으로 보인다. (20)은 18세기 이후 ‘전환’의 의미로 사용된 ‘돌이-’의 예이다.

- (20) ㄱ. 관원이 **물**을 돌여 들어가매 (음병연행록 9: 30)
 ㄴ. 슈단을 받 호야 돌여 보내여 (독립신문 1897. 11. 23일자)
 ㄷ. 지금까지 **금광**을 고이산국으로 아니 돌여 보닛다더라 (독립신문 1897. 1. 18일자)
 ㄹ. ㄱ은 **성품**을 돌이기가 어려울지라 (협성회회보 1898. 1. 22일자)

한편 ‘회전’의 ‘돌이-’는 17세기 이후 (21)에서 보듯 ‘돌이-’형과 ‘돌리-’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 ‘돌리-’로 합류되어 간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전환’의 ‘돌이-’도 ‘돌리-’로 나타난 예가 하나 발견된다. (22)이 그 예이다.

- (21) ㄱ. 礮擲落子 핑이 돌리다 (역어유해下 23b)

- ㄴ. 우리 각각 저기 자고 돌려 니러 브즈러니 물 머기자 (노걸대언해上 22b)
- ㄷ. 열 사람이 혼 짐식 돌려 먹이게 흐라 (박통사언해上 21a)
- ㄹ. 여러 사람이 돌려 먹는 거시라 (음병연행록 5: 90)
- ㅁ. 竹徻 조리 돌이다 (국한회어 263)

(22) 위에 안즌 우리 하나님과 고양의게 구완^{하물} 돌리라 (예수성교전서 요한묵시록 07: 10)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돌-	(빙 두르다)	회전의 사동사		전환의 사동사			
15세기	돌-		돌이-△ ³⁾		도르-◎			
16세기	돌-	도르-	돌이-○		도르-△			
17세기	돌-			돌리-○	도르- ⁴⁾ ◎	도라- ⁵⁾ ◎	돌오○	돌이-△ ⁶⁾
18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19세기	돌-		돌이-○	돌리-○		도라-◎		돌이○ 돌리-△
20세기	돌-	도르-		돌리-				돌리-

중세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었고 ‘회전’과 ‘전환’의 의미를 지녔다. 그 사동사로 각각 ‘돌이-’와 ‘도르-’가 있었다. ‘돌이-’는 중세국어 문헌에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7세기 이후로는 ‘돌이-’형과 ‘돌리-’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돌리-’형으로 합류해 간다. ‘도르-’는 15세기에 매우 활발한 쓰임을 보였으나 16세기 이후로는 이전 시기의 문헌의 중간·개수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 흔적은

-
- 3) 기호는 용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1회, ‘○’는 2회~10회, ‘◎’는 10회 이상 발견됨을 의미한다.
 - 4) 모두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이다.
 - 5) 이하 모두 ‘도라 보내’의 구성이다.
 - 6) ‘막대를 돌이 오매’(두시언해 중간본 22: 26a)는 초간본의 ‘돌아 오매’의 오각으로 보인다.

‘도라 보내.’ 구성에 남아 19세기까지 이어진다. 한편 17세기에는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로 ‘돌오-’형이 나타나지만 이후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18세기 이후 ‘회전’의 사동사와 같은 형식인 ‘돌이-’형과 ‘돌라-’형으로 대체되며 회전의 ‘돌이-’와 마찬가지로 ‘돌라-’로 합류한다.⁷⁾

이상과 같이 ‘도르-’가 ‘돌이-’로 변해 가는 양상은 ‘돌이키다’와 ‘도리어’의 소급형인 ‘도르혿(혿)-’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르혿(혿)-’는 ‘도르-’에 강세 접미사 ‘-혿(혿)-’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혿(혿)-’는 본래 동사 ‘혿-ㅁ[ㅣ]’에서 온 것으로 보이니(허웅 1975: 195) 선행 어기가 공식적으로 동사로 쓰이며,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강세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의미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다(구본관 1998: 244). ‘혿(혿)-’는 ‘두르혿-’, ‘니르(르)혿-’, ‘기우리혿-’, ‘드리혿-’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타동사를 어기로 취하며,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고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한다. 우리는 ‘도르혿(혿)-’의 성조가 ‘LLH형’이라는 데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르혿-’는 몇 가지의 이표기를 가지는데, 대체로 15세기 중엽까지의 문헌에서는 ‘도르혿-’가 사용되며 이는 64회 나타난다. 15세기 후기 문헌일수록 ‘도르혿-’가 많이 나타나며 그 수는 210회에 이른다. 한편 ‘도로혿-’는 15세기에는 『두시언해』 초간본에만 27회 등장한다. 이들은 동사의 활용형으로도 사용되었지만 ‘還, 返, 反, 却’ 등에 해당하는 부사적인 쓰임도 보인다.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ㄱ. 廻尙은 도르혿 向홀씨니 (월인석보2: 61a)

ㄴ. 紫金山을 도르혿샤(廻紫金山) (능엄경언해9: 41a)

-
- 7)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돌이-’와 ‘도르-’가 중세국어 시기에 ‘돌-’의 사동사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존한 것이 아니라 보수형인 ‘도르-’가 개신형인 ‘돌이-’로 대체되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 8) 앞의 분석에 따르면 ‘도르혿샤’는 ‘전환’의 의미의 ‘도르-’와 ‘혿-’의 결합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회전’의 ‘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4') 도르혀 뒤오쳐 어엿비 너기더라 (삼강행실도 린던본 孝 2)

(25) 머리롤 도르혀 바라오니(回首) (두시언해21: 19a)

(25') ㄱ. 훤이 도르혀 알며(妄還覺) (금강경삼가해4: 55b)

ㄴ. 이 經 난 고들 도르혀 서르 아론딘덴(此經出處 還相委) (금강경삼가해2: 49a)

ㄷ. 범을 그리다가 일우디 못흐면 도르혀 가히 곤다 호미라 (내훈1: 35a)

(26) 머리롤 도로혀 보눏다 (두시언해17: 9a)

(26') ㄱ. 도로혀 雲霧를 혼변 헤혀고져 스랑흐다라(還思霧一披) (두시언해20: 50a)

ㄴ. 길히 窮흐야 도로혀 俗人의 눈 흘기여 보물 맞나니(途窮返遭俗眼白) (두시언해16: 27b)

(24), (25), (26) 등을 보면 ‘도르혀-’가 ‘體, 머리’ 등과 공기하므로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4'), (25'), (26')에서 보듯 많은 경우 ‘도르혀’류의 표현은 부사적인 쓰임을 보인다.

이제 16세기 이후의 표기형을 살펴보겠다. 16세기에 나타나는 ‘도르혀-’는 모두 『몽산법어』의 판본에서만 발견되며, 1577년의 송광사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27). ‘도르혀-’와 ‘도로혀-’는 각각 30여회씩 발견된다. 역시 동사의 활용형의 모습(28ㄱ), (29ㄱ)]과 부사적인 쓰임(28ㄴ), (29ㄴ)]을 확인할 수 있다.

(27) 宗門中에 하나한 公案이 도르혀 조스르비요미 (몽산법어 송광사본 50a)

(28) ㄱ. 부테 광명을 도르혀샤 (번역막통사 74b)

ㄴ. 즘든 뵈 거시 혼 무들기만 곤디 못흐니 도르혀 더 사르물 다 프라 줌만 그트니 업스니 (번역노걸대下 7b-8a)

(29) ㄱ. 몸을 도로혀 혼 바를 낫드르며 (무예제보 11b)

ㄴ. 글 비호모로 써 유익호물 구흐다가 이제 도로혀 스스로 헤흐논디라 (번역소학8: 30a)

17세기 이후 ‘도르혀’는 ‘ㅎ’의 음가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변

화하는데, 하나는 ‘ㅎ’가 ‘ㄱ’로 변화한 ‘도로켜’형이며, 다른 하나는 ‘ㅎ’가 ‘ㅇ’로 변화한 ‘도로여’형이다. 제2음절의 ‘·’는 17세기 이후 ‘ㅇ’로 나타난다.

- (30) ㄱ. 머리를 도로켜 (마경초집언해上 87a)
 ㄴ. 손을 디접히시미 도로켜 어렵소이 너기오와 (침해신어 初8: 16b)
- (31) ㄱ. 술위를 도로여 누리창으로 향하야 (을병연행록4: 79)
 ㄴ. 도로여 정양문을 나 누구관을 뜨르디 아느니 업더니 (을병연행록4: 75)

‘도로켜’ 형은 주로 동사의 활용형으로의 쓰임을 보이지만 간혹 (30ㄴ)과 같은 부사적 쓰임도 보인다. 반면 ‘도로여’ 형은 주로 부사적인 쓰임을 보이며, (31ㄱ)과 같이 동사의 활용형을 보이는 예는 매우 드물다.

한편 18세기 이후 제2음절의 모음은 대체로 ‘ㅇ’에서 ‘ㅣ’로 변화한다. 이것은 ‘도로켜’형과 ‘도로여’형 모두에 해당한다.

- (32) ㄱ. 머리를 도리켜 온 길을 보니 (턴로력당1: 73b)
 ㄴ. 슈ㅣ 도리켜 베드로를 보시니 (신약전서 녹22: 61)
- (33) ㄱ. 세존하 내 도리여 와 (지장경下 22a)
 ㄴ. 그 칭명을 보존코져 하느 자는 돌이여 망하고 오직 망한 자는 도리여 보존하리라 (예수성교전서 누가 17: 33)

‘도로켜’와 ‘도로여’가 ‘도리켜’와 ‘도리여’로 변화하는 원인으로는 그 어기가 되었던 동사 ‘도르-’가 ‘돌이-’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유추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각각 현대어의 ‘돌이키-’와 ‘도리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도르-’와 비슷한 변화를 겪는 동사로 ‘살-’의 사동사 ‘사르-’를 들 수 있다. ‘살-’도 ‘돌-’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상성을 지닌 어간이며, 의미의 차이에 따라 ‘사르-’와 ‘살이’라는 두 가지 사동사를 가졌다.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르-’ 역시 ‘도르-’와 마찬가지로 ‘ㄹ형’의 성조를 가지며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유형으로, ‘살오-’를 거쳐 ‘사로잡다’ 등의 어휘에 화석처럼 남아있고,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 ‘살이-’와 같은 형태로 대치되어 간다.

- (34)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사르-’
- ㄱ. 내사 주거도 드던커니와 이 아드를 사르코라 (삼강행실도 런던본 孝 20)
 - ㄴ. 나를 혼 들 스시나 살아 뒸다가 주기쇼셔 (석보상절 24: 15a)
 - ㄷ. 죽자히 毗摩質多阿脩羅를 사르자바 업믹야 (월인석보11: 30b)
- (35)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의 ‘살이-’
- ㄱ. 孟母 | 니르샤되 이씨 아들 살을 배 아니라 흐시고 가 (내훈 3: 12b)
 - ㄴ. 經義齋에는 氣質이 기명하고 器量이 어위큰 사름을 굴흐야 살이고 (번역소학 9: 10b)
- (36)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살오-’
- ㄱ. 흐물며 닻뵈 명을 주겨 내 몸 살오물 엇디 츄미리오 (초말삼자경문 야운 50a)
 - ㄴ. 일체에 죄 똥흔 중심드를 살와 내오져 흐노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31b)
 - ㄷ. 내 니르논 말을 드르면 나도 네 오라비를 살와 주마 (계축일기 上 45a)
- (37) ‘죽지 않고 살게 하다’의 ‘살르-’, ‘살이-’, ‘살리-’
- ㄱ. 하늘히 그러타 만민을 아니 살라 내시라 (병자일기 210)
 - ㄴ. 문정건의 드러가 아비를 살여 주옵쇼셔 하니 (한중록 262)
 - ㄷ. 빌건대 이 아히를 살리라 (오률행실도 孝 33a)

(34)와 (35)는 중세국어 시기에 ‘사르-’와 ‘살이-’가 사용된 예이다. ‘사르-’는 (36)에서 보듯 ‘살오-’로도 나타났으며, 17세기 이후로는 ‘사르-’를 찾기 힘들다. 한편 ‘살오-’는 (37)과 같이 ‘살르-’, ‘살이-’, ‘살리-’ 등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살리-’형으로 통일된다. 이는 ‘(어느 장소에) 살게 하다’의 ‘살이-’가 ‘살리-’로 변화해 가는 것과 평행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과 그 파생 동사들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도르-’의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르-’가 ‘돌이-’를 거쳐 ‘돌리-’로 대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도르-’와 현대어 ‘돌려주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도로 주다’의 ‘도로’의 성격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에 해당하는 중세어 표현은 ‘도로 주다’이다. 이 장에서는 ‘도로 주다’와 현대국어 ‘돌려주다’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고, ‘돌려주다’ 구성의 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와 ‘도로 주다’ 표현 사이에는 어감의 차이가 있다. 전자가 대상의 주인, 즉 원래의 소유주를 전제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소유주에 대한 전제가 약한 듯하다. 하지만 근대 한국어 이전시기에도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인의 직관으로 보기에 근대어 이전의 ‘도로 주다’ 구성의 예문은 현대국어의 ‘돌려주다’로도 ‘도로 주다’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도로 주다’는 단순한 ‘부사+동사’ 구성보다는 긴밀한, 일종의 연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의 ‘돌-’과 ‘돌라-’가 ‘돌보다, 돌아가다, 돌아보다, 돌아오다, 돌려주다, 돌려받다, 돌려놓다, 돌려쓰다, 돌려막다’ 등 다양한 합성동사 내지는 동사 연결 구성을 보듯, 중세국어에서도 ‘돌-’과 ‘도르-’, ‘돌이-’는 다양한 동사 연결 구성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동사 연결 구성의 성격은 단순한 연속 동사 구성에서 합성동사로 볼 수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38)은 그러한 세밀한 구분은 미루어 두고 15세기에 나타나는 ‘돌-’ 관련 동사들의 동사 연결 구성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38) ㄱ. 돌보다

- ㄴ. 도라 가다, 도라 나다, 도라 나오다, 도라 니다, 도라 느리다, 도라 들다, 도라 디다, 도라 묻다, 도라 보다, 도라 비취다, 도라 브라다, 도라 셔다, 도라 슬쩍다, 도라 알다, 도라 오다, 도라 외다, 도라 헐다
- ㄷ. 돌아 가다(歸), 돌아 느려가다, 돌아 들다, 돌아 보다, 돌아 보내다, 돌아 오다, 돌아 브라다(6회)
- ㄹ. 돌라 브라다(1회)
- ㅁ. 도로 가다, 도로 놓다, 도로 드리다, 도로 들다, 도로 드리다, 도로 든다, 도로 끌르다, 도로 받다, 도로 보내다, 도로 주다, 도로 헐다, 도로

나다 등

(38ㄱ)은 ‘돌-’과 ‘보-’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합성동사이다. (38ㄴ)은 ‘돌-’의 ‘V어V’ 구성이며, (38ㄷ)은 ‘도르-’의 ‘V어V’ 구성이다. (38ㄹ)의 ‘돌라 브라다’는 『두시언해』에 1회 나타나는데, 이 이외에는 (38ㄷ)의 ‘돌아 브라다’와 같이 나타난다. ‘돌이-’는 15세기에 ‘V어V’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38ㅁ)은 ‘도로+V’ 구성이다. 부사와 동사의 연결 구성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일부만 제시하였다. (38ㄱ)을 제외한 동사 연결 구성을 합성동사로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와 같은 예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39) ㄱ. 阿難이 묻저 다른 뒷 講을 바다 머리 든너 도라 몰 와 (능엄경언해1: 32a)
 ㄴ. 내 늑외 이어기 도라 아니 오리라 흐야늘 (삼강행실도 런던본 ㄹ 17)
 ㄷ. 날굽 히를 도라 아니 웻거늘 (삼강행실도 런던본 ㄹ 8)

(39)는 모두 ‘도라 오다’의 예 중 ‘도라’와 ‘오다’사이에 부정어 ‘몰, 아니’ 등이 개재한 것이다. 한 단어의 내부에는 다른 통사적 요소가 끼어들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한 단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38)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드리다, 주다, 받다’의 경우 오직 ‘도로’와만 공기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목록은 시대에 따라 표기법의 영향 혹은 어형의 변화 및 대치 등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지만, ‘드리다, 주다, 받다’가 ‘도로’와만 연결된다는 경향은 20세기 초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도로’와 ‘드리다, 주다, 받다’가 일종의 연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로 주다’ 구성은 ‘부사+동사’ 구성이므로 그 사이에 다른 통사적 요소가 개입하기도 한다.

- (40) ㄱ. 아버의 속우퇴를 가져다가 몸소 스스로 썰야 도로 되신 이를 주되 (소학 언해 6: 79b)
 ㄴ. 그러면 도로 내여 너 주마(那們時廻與你) (번역노걸대下 20b)
 ㄷ. 그러면 도로 너를 주마 (노걸대언해下18b)
 ㄹ. 내 도로 왕즈를 주고 골오되 (음병연행록 3: 26)

그렇다면 이제 ‘도로 주다’의 용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은 15세기부터 세기별로 ‘도로 주다’가 사용된 용례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도로 주다’의 구성의 예문은 현대국어의 ‘돌려주다’ 혹은 ‘도로 주다’ 두 가지 경우 모두로 해석 가능한 것이 많다.

- (41) ㄱ. 西征에 功이 일어늘 所獲을 다 도로 주샤 仁義之兵을 遼左ㅣ 깃스븨니
(西征建功盡還所獲 仁義之兵遼左悅服) (용비어천가 41)
 ㄴ. 錦繡엿 고래를 거더 소닐 도로 주고샤 尺스미 和平호를 비롯 아로라(錦
鯨卷還客 始覺心和平) (두시언해 초간본22: 20a)
- (42) ㄱ. 그 반뵈 쉬 몸 나커든 보내어든 빠져 흥 ㅁ슴곰 눈화 쓰고 야청을 너
르미 드러 흥 ㅁ스물 도로 주거나 반자글 흥거나 몸 흥가. (순천김씨연
간 70: 15)
 ㄴ. 머느리 아피나 飲食과 衣服과 피과 김과 출것과 슈건과 藍와 蘭을 주어
든 곧 받아 식부모의 드리울디니 식부모ㅣ 받아시든 깃거 새로 주는 것
슬 받는 드시 흥고 만일 도로 주거시든 스양호되 그리하라 흥심을 얻디
뽉흥야든 다시 주심을 받좁는 드시 흥야 간스흥야 써 업서 흥실 적을
기들일디나라(婦或賜之飲食衣服布帛佩幌藍蘭, 則受而獻諸舅姑。舅姑受之
則喜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藏以待乏) (소학언해2: 13b)

15세기에는 (41)의 두 예가 발견되는데, 모두 ‘還’의 번역어로 ‘도로 주다’가 사용되었다. (42)는 16세기의 예이다. 앞의 (40ㄱ, ㄴ)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 (43) ㄱ. 흥혀 그 사름이 도로 모르려코 오나든 무명 도로 주게 되거든 내 흥여
준 글워를 도로 밧고 제 무명을 주게 흥소 (현풍곽씨연간 70)
 ㄴ. 꾸러든 主人이 注를 바다 술을 붓고 注를 도로 주고 蠶蠶을 가져 받즈
와 左로 蠶을 잡고 (가례언해1: 26a)
 ㄷ. 모도와 흥 돈 두 폰이니 네 쏘 도로 가져오라 그러면 도로 너를 주마
(노걸대언해下18b) [(=40ㄷ)]
- (44) ㄱ. 오라디 아녀 그 관작을 도로 주시고 그 제즈를 특별이 호흥흥하시더라
(선조행장 29)
 ㄴ. 그 사름이 스스로 다내디 못흥를 헤아리고 던산을 도로 주되 갑술 츠디
아니흥고 이육고 쏘 풀거늘 쏘 샅다가 도로 주기를 수스 츠의 니르디

라 (종덕신편 中 33)

- ㄷ. 광안의 체 직산 문서와 자물쇠를 다 광진의 처를 주니 광진이 봉헌여 도로 주고 곁오티 (오륜행실도 見 31a)

(45) ㄱ. 還給 도로 주다 (한불자년)

- ㄴ. 주어라 이에 또한 너희게로 도로 주디 (성경직해 6: 8b)
 ㄷ. 차운 겨울에 집을 었지 파노노 호고 돈 일씩오십냥을 도로 주면서 세집을 구하라 호엿더니 (독립신문 1896. 11. 13일자)

(46) ㄱ. 한 장부 전립을 쓰고 당황이 오다가 농부를 보고 전대 유무를 못거날 농부가 그 전대를 도로 주니 (신학월보3: 202)

- ㄴ. 리우선 씨가 썩아서 갓던 위임장을 쳐져서 리춘세 씨의게 도로 주고 (대한매일신보 1909. 10. 17일자)
 ㄷ. 그 도적이 고기를 숙이고 눈물을 흘녀 곁오티 내가 근본 악인이 아니라 잠간 량심을 일흠이라 호며 썩아슨 돈을 도로 주고 쏘 심환을 보조호엿다니 (경향신문 1907. 4. 19일자)

(47) 추대:(推貸) 名 금품을 돌려주는 것 [-하다 ㄹ] (수정증보조선어사전)

(43), (44), (45), (46)는 각각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도로 주다’의 쓰임이다. (45-ㄱ)의 ‘환급’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도로 돌려줌’이라는 뜻풀이를 참조하더라도 ‘돌려주다’와 ‘도로 주다’의 의미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7)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어사 자료 말뭉치〉 중에서 보이는 ‘돌려주다’의 유일한 용례이다.

이러한 ‘도로 주다’의 구성은 ‘(대상)을 (수혜주)를 도로 주’ 혹은 ‘(대상)을 (수혜주)에게 도로 주’와 같은 논항 구조를 보인다. 이는 ‘주’의 논항구조와 동일하다. 즉 이 동사구에서 ‘도로’의 역할은 방향, 즉 ‘전환’의 의미를 보태어 ‘주다’를 수식하는 것이다. ‘도로’가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어기가 ‘도르-’임에 기원한다.

파생부사 ‘도르’는 ‘反, 還, 却, 顧’ 등의 번역어로, ‘본래대로’, ‘되돌아’ 등의 의미를 지닌다. ‘도르’가 ‘돌-’의 파생부사가 아니라 ‘돌-’의 사동사 ‘도르-’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현희(1996)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부사가 ‘ㄷ형’의 성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돌-’은 유동적 상

성을 지니는 어간이므로 ‘돌-’에 ‘-오’가 결합한 파생부사라면 ‘LH형’의 성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도르-’에서 영파생된 부사라고 본다면, ‘도르-’는 ‘LH형’의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동사이므로 성조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아울러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도르-’는 ‘전환’의 의미를 지니므로, 부사 ‘도로’가 보이는 ‘본래대로, 되돌려’라는 의미는 ‘도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⁹⁾ 물론 ‘도로’를 ‘도르-’에서 영파생을 겪은 부사 ‘도르’가 형성되고, 그 제2음절의 ‘·’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지, 먼저 음의 변화를 겪어 동사 ‘도르’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부사 ‘도로’가 파생된 것인지에, 혹은 ‘도르-’에서 곧바로 ‘도로’가 파생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돌려주다’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우선 그 시기는 ‘전환’의 ‘도르-’가 ‘돌리-’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후일 것이다. 이러한 합성(?)은 방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사르-’류 파생동사가 ‘돌구-(廻), 얼구-(氷), 살구-(生), 일구-, 날구-(起), 길구-(長), 불구-(潤), 돌구-(圍)’ 등 접미사 ‘-구-’¹⁰⁾를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함북 방언에서는 ‘돌가주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V₁어V₂’ 구성의 V₁에 해당하는 ‘돌리-’는 형태상으로는

9) ‘도르-’의 ‘전환’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원론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다시, 도로’의 의미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접두사 ‘되-’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되-’를 ‘돌-’에 ‘이’가 결합한 ‘도리’에서 ‘리’가 탈락해 ‘도이’가 되고, 이것이 축약되어 ‘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음운론적으로 이렇게 ‘리’가 탈락할 수 있을지, 형태론적으로 그러한 ‘-이’의 성격과 그로 인해 파생된 ‘되’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의미적으로도 ‘되’는 파생부사 ‘도로’와 마찬가지로 ‘돌-’보다는 ‘도르-’의 의미와 가깝다는 점 등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되-’의 쓰임은 17세기 초 『병자일기』의 ‘논 갈려고 되가다(병자일기 206)’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듯하고, 이 외에 ‘되씨여나니(박통사 언해 上 32b), 되즈디(침해신어 初 4: 29a), 되도라 오디(증수무원록 3: 38a)’ 등의 표현이 발견된다. 이러한 ‘되-’가 ‘도로’에 관한 지금 우리의 논의와 관련되는 지는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10) 김성규(1995)에서는 ‘사르다’ 류의 파생어를 만드는 사동 접미사 ‘·-/ㄱ’가 ‘ㄱ’계통의 자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고, 그것이 ‘ㄱ/ㄱ’이었는지 ‘ㄱ/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다른 유형들과의 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돌-’의 사동사이지만,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즉 ‘원래의 소유주에게’라는 구체적인 방향의 의미를 보태는 것이다. ‘돌려주다’의 형성은 비록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부사+동사’의 구성보다는 ‘동사+동사’ 구성이 더욱 긴밀한 합성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V₁에 해당하는 ‘돌-’류 동사가 단지 후행하는 V₂의 방향을 나타내는 경향을 우리는 이미 앞서 (17), (18)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를 다시 제시해 본다.

(48) ㄱ. 바닷^ㅅ에 보내야 날오디 수양이 샅기 나해야 돌아 보내오리라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忠 6a)

ㄴ. 노푼 소니 뷔 ㅁ돌아 보내니 (두시언해 중간본 15: 29a)

(49) ㄱ. 안해 피신 사툼과 의장잇 거슬 다 도라 보내고 (소학언해 6: 54b)

ㄴ. 예나라히 니르러 혼이를 권^ㅎ야 ㄱ마니 도라 보내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忠 1b)

(50) [(=12)]

ㄱ. 머리돌 돌아서(回首) (두시언해 17: 39b)

ㄴ. 체돌 돌아 도로 돌여 天子를 와 보스오니(廻鞭却走見天子) (두시언해 17: 31a)

ㄷ. 北녀괴서 白帝城엿 ㅁ돌아(北回白帝棹) (두시언해 22: 54a)

ㄹ. 중돌 돌아 보내야 아들을 소겨 नी아 僧齋를 ㅎ다라 ㅎ니 (월인석보 23: 65b)

(48), (49)는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돌아 보내’, ‘도라 보내’의 예문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돌아V’ 구성의 목적어를 ‘돌아’ 즉 ‘도라’가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50), ‘돌아 보내’, ‘도라 보내’의 목적어는 ‘보내’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돌아’ 혹은 ‘도라’는 그 방향을 보충하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처럼 기존의 동사 연결 구성의 존재와 ‘돌라’라는 새로운 형태, 그리고 의미적 요청에 따라 ‘돌려주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의 의미의 사동사 ‘도르’에서 파생된 부사 ‘도로’는 ‘주’와 동사구를 이루어, ‘대상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다, 혹

은 다시 주다'의 의미를 보태었다. 근대에 들어 '원래의 소유주에게 주다'라는 의미를 더욱 간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적으로도 더욱 간밀한 'V₁어 V₂' 구성이 나타났다. '돌라'와 '주'가 합성한 '돌려주다'가 그것이다. '돌라'가 이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돌아 보내-', '도라 보내-'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 본고는 현대국어의 '돌려주다'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의 '돌-'의 사동사의 변화와 그 'V어V'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 국어의 '돌-'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었고 '회전'과 '전환'의 의미를 지녔다. 그 사동사로 각각 '돌아-'와 '도라-'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변화를 거쳐 현대어의 '돌라-'에 이르는데, 그 변화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1) [(=23)]

	돌-	(빙 두르다)	회전의 사동사	전환의 사동사			
15세기	돌-		돌아-△ ¹¹⁾	도라-◎			
16세기	돌-	도라-	돌아-○	도라-△			
17세기	돌-		돌라-○	도라- ¹²⁾ ◎	도라- ¹³⁾ ◎	돌오○	돌아-△ ¹⁴⁾
18세기	돌-		돌아-△	돌라-○	도라-◎		돌아-△
19세기	돌-		돌아-○	돌라-○	도라-◎		돌이○ 돌라-△
20세기	돌-	도라-		돌라-			돌라-

- 11) 기호는 용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1회, '○'는 2회~10회, '◎'는 10회 이상 발견됨을 의미한다.
- 12) 모두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이다.
- 13) 이하 모두 '도라 보내-'의 구성이다.
- 14) '막대를 돌이 오매'(두시언해 중간본 22: 26a)는 초간본의 '돌아 오매'의 오각으

‘도르-’는 부사 ‘도로’와 ‘도르혀-’등에 그 흔적을 남겼는데, ‘도르혀-’는 ‘도로켜, 도리켜’, ‘도로여, 도리어’ 등의 변화를 겪으며 현대어의 ‘돌이키-’, ‘도리어’에 이르렀다. 이때 제2음절의 음이 ‘ㄱ>ㅣ’의 변화를 겪는 것은 ‘도르-’가 ‘돌이-’로 대치되는 것에 따른 유추로 보인다.

한편 ‘도로’는 ‘ㄷ형’의 성조를 보이는 파생부사로 ‘도로 주다, 도로 받다’ 등과 일종의 연어구성을 이루었다. 이 ‘부사+동사’ 구성은 ‘대상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다, 혹은 다시 주다’의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20세기 무렵 형태적으로도 더욱 긴밀해진 ‘V어V’ 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V₁에 해당하는 ‘돌라-’는 본래 사동사이지만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원래의 소유주에게’라는 방향의 ‘전환’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의는 ‘돌-’과 그 파생 사동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협소한 국면만을 다루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동법의 변천이라든지 동사 연결 구성의 내적 구조에 대한 고찰이 미진하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사전

- 김민수 외(1991),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
유창돈(1984), 『이조어사전』 5판, 연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연세 한국어 사전 [http://kordic.britannica.co.kr/sear_frame.asp?keyword=학교
&pumsa=&keykind=searkey](http://kordic.britannica.co.kr/sear_frame.asp?keyword=학교&pumsa=&keykind=searkey)

코퍼스

국어사자료말뭉치

참고논저

- 고영근(2006),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파주: 탑출판사.
- 곽충구(1991),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 15세기 국어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29, pp. 113-40.
- _____(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서울: 태학사.
- 김성규(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남학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pp. 381-94.
- _____(1998),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국어학』 32, pp. 21-47.
- _____(2001), 「유동적 상성 어간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1, pp. 141-64.
- 김완진(1977),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재판), 서울: 탑출판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철의(1992/2008),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2판, 국어학총서 18, 파주: 태학사.
- 안병희·이광호(1990/2009),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유필재(2003),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어학연구』 3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91-110.
- 이기문(1962), 「중세국어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pp. 120-53.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둔집’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pp. 133-50.
- _____(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신구문화사.
- _____(1996),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구조」, 이기문 교수 정년 퇴임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서울: 신구문화사, pp. 644-59.
- 주지연(2008), 「한국어 ‘V₁어 V₂’ 구성의 사건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 외(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서울: 태학사.
- 한재영(1985), 「중세국어 성조에 관한 일고찰」, 『국어학』 14, pp. 237-63.
- 허 응(1975/1995), 『우리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 샘문화사.